

제2기 **미주문화**

2007
겨울호

미주한국문인협회

Korean Literature of America

연재 강좌

10 고 원 / 현대 문예사조 개관 3 — 상징주의

시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8 강성재 아무도 살지 않는 집 | 57 안선헌 가을 산에는 |
| 20 강학희 배꼽 | 59 오연희 다이어리 |
| 22 강화식 끝나지 않은 연극 | 61 오정방 오레곤 연가(戀歌) |
| 24 고영준 나를 보고 운다 | 63 윤석훈 손바닥 |
| 25 고현혜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 | 65 윤종길 가족 허리띠 |
| 27 곽상희 그 땐 시인이란 이름이 | 67 윤희정 그리움 |
| 29 김내수 그림자 그림 | 69 이기윤 시내 |
| 31 김모수 누가 누구를 구경하느냐 | 70 이용애 별이 빛난 밤 |
| 33 김복숙 갈등 | 72 이윤홍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
돌멩이 |
| 35 김성수 밤이 아름다운 이유 | 74 장선영 연말 |
| 37 김신웅 가을 까치 | 75 장태숙 우회(迂廻) |
| 38 김영교 겨울나무 소고 | 77 정국희 소포 |
| 40 김희주 진짜 | 79 정용진 허수아비 |
| 42 문인귀 분명한 것 | 81 조영철 눈 |
| 43 박경호 포춘쿠키
(Fortune cookies) | 82 조주현 함께 가는 길 |
| 45 변재무 춤을 춘다 | 84 차신재 장마 |
| 47 석정희 섬에 홀로 남게 되는 2 | 86 채수옥 적막 |
| 49 송정룡 천륜(天倫) | 88 최석봉 가을이어 |
| 51 신소피아 절벽 위의 소나무 | 89 최익철 분재 |
| 53 신 헬렌 마음의 병 | 90 추은진 예감 |
| 55 안경라 가을편지 | 91 홍인숙(그레이스) 저녁이 내리는 바다 |

부록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84 미주한국문인협회 25년 약사 | 298 미주 한국문인 주소록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계간 <미주문학> 구독 안내

계간 <미주문학>은 우리의 자산
모두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

<미주문학>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요, 발표의 장입니다. <미주문학>이 1년 네 번 발행되는 계간지로 정착되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.

이것은 문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 문학인들의 발표 지면이 늘어난 것을 뜻하며, 곧 우리 모두의 창작 의욕을 돋우고, 전체 문학계의 활성화로 직결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.

또한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,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미주 문학인들을 위한 일입니다.

아울러 계간 <미주문학>이 회원들끼리만, 미주 문학인들끼리만 나눠 보는 회원지, 또는 동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, 모든 문학 애호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반 판매를 위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, 편집 제작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.

우리 모두 계간 <미주문학>의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. 그리고 주위의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정기구독을 권고합니다.

우리는 이것을 네 번(호)의, 또는 여덟 번(호)의 책값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계간 <미주문학>을 위해 찬조한다고 생각합니다.

계간 <미주문학>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,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. 다른 누구도 아닌, 모두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.

우리 모든 문학인들에게 계간 <미주문학>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합니다.

미주한글문인협회

(찬조자 및 정기구독자 명단은 매달 문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)